



안녕하십니까?

**시종면 누리집**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
우리 시종면은 영산강 하류의 넓은 황토 평야 지대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으로 인정이 넘치는 고장입니다.

{:SHOWAD('150','right');} 예로부터 독창적인 지역문화를 만들어왔으며 마한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옹관 고분들이 내동리, 옥야리, 신연리, 금지리 등에 분포되어 있습니다. 2006년 6월에는 옥야리 고분군 옆에 「마한문화공원」이 조성되어 마한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. 마한문화공원 내 남해신사는 우리나라 3대 해신당 중 하나로 고려 현종때부터 봄가을에 해신제를 지내고 있습니다.

넓게 펼쳐진 간척지에서 질 좋은 친환경 달마지쌀이 생산되며, 건강한 황토에서는 잡곡, 영암배, 한라봉, 이색토마토(검정·노랑·대추), 수박, 단호박, 무, 배추, 6년근 인삼 등 우수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. 친환경 배추로 정성껏 만든 절임배추와 섬유질이 풍부하고 간암·빈혈·동맥경화증에 효능이 있는 대표적인 웰빙식품 무청(시래기)도 생산되고 있습니다.

또한, 서해안 고속도로와 호남선복선화가 완공됨에 따라 물류비용 절감과 접근성이 양호해져 질 좋은 농산물 생산·가공·판매와 황토를 활용한 관광자원개발 등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갖춘 미래가 밝은 지역이기도 합니다.

더욱 발전하는 시종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.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.

시종면장 **박헌재**

Copyrights (c) 영암군청.